

# 도서관서도 '베스트셀러'를 많이 본다

전국 도서관 사서들이 밝히는 이용자의 독서경향

도서관을 찾는 사람은 늘고 있으나, 읽는 책은 베스트셀러에 한정됐다. 《출판저널》이 '독서의 달'을 맞아 전국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독서경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환경의 개선과 IMF 여파로 이용자 수는 증가했으나, 도서구입 예산과 독서 프로그램 부족으로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독서는 문학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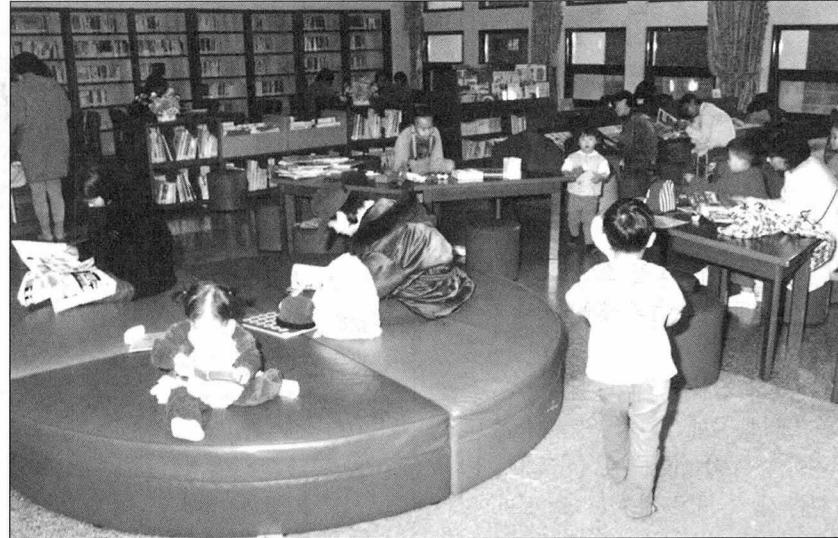
학생들의 대출 건수는 꾸준히 늘어 강화군립도서관만 하더라도 전체 대출의 55%가 학생이다. 다른 도서관도 사정은 같아 학생들이 하고하는 오후 시간대에 가장 이용률이 높다. 최근에는 실직인구가 늘면서 성인 남자의 이용률도 높아졌다. 오미순 사서(해운대도서관)는 "IMF 여파로 취업·창업 관련서의 이용률이 늘고 있으며 그 이용자 대부분은 성인"이라고 밝혔고 성은정 사서(부여도서관) 역시 "IMF시태 이후, 성인 남자들의 이용률이 높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문제는 도서관이 보유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국한돼 다양한 독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아리랑》, 《하늘이여 땅이여》, 《남자의 향기》, 《토지》 등을 많이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는 로맨스소설이나 무협소설이 청소년들

의 읽을거리로 제공되는 실정. 사정은 특수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어린이·성인 모두 문학류를 많이 찾고 점자도서관의 경우, 전체대출 중 80%가 소설류다. 구본일 사서(강화도서관)는 "예산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다양한 책을 갖출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알맞은 독서 프로그램이 없는 점도 이용자들의 베스트셀러 편중현상에 한몫을 담당했다. 진재호 사서(광주도서관)는 "과거보다 독서생활화가 고조됐지만, 양서를 읽는 독서문화의 부족"을, 김선연 사서(어린이도서관)는 "유아시절부터 성인까지 자연스레 고전을 읽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확충"을 지적했다.

한편 월평균 대출권수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11,000~45,000권, 그 외 지역은 1,600~6,000권, 특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 55,000권, 전화나 우편으로 대출하는 점자도서관이 650권이다. 관내열람만 허용되는 사회과학도서관은 월평균 이용자 7,676명으로 대학생·대학원생·교수 등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 김연수 기자



오전에는 주로 유아와 함께온 주부층이 오후에는 학생·일반인의 이용률이 높다.

승하나, 연령별로는 성인이 학생의 두배 정도 월평균 대출권수는 약 11,000권이다. 최근 6개월간 최다 대출 분야는 문학이다.

**②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컴퓨터, 어학 관련 분야와 교양 도서를 많이 찾고 있다. 각 지역마다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작은 도서관이 생긴다면, 독서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이다(열람과 과장 서점석).**

## 송파도서관

**①** 오전에는 대출도서의 반납이, 오후에는 중·고등학생들의 대출이 주로 이뤄진다. 일반인은 오후 6시 이후에 몰린다. 월평균 대출권수는 45,000권이다.

**②** 환경문제에 관한 대출이 두드러지지만, 각 주제별로 고루 이용하는 편이다. 이용자들이 책을 소중히 다뤘으면 한다. 또한 반납 기한을 지켜 타 이용자의 열람에 도움을 줘야 한다(인문사회자연과학실장 김은실).

## 강화군립도서관

**①** 학생층이 전체 이용자 중 55%를 차지하며 시간대별로 보면 방과 후인 오후 4시 이후에 많이 이용한다. 월평균 대출권수는 1,592권이며 최근 6개월간 최다 대출도서는 이문열의 《삼국지》, 《퇴마록》으로, 문학 분야가 전체 대출에서 61%를 차지한다.

**②** 지역 특성 때문에 문학 분야가 많이 대출되지만, 전문 분야는 구비하지 못해 대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도서구입 예산과 전문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군 단위의 공공도서관에는 최소한 사서 인력이 두 명

은 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사서8급 구본일).

## 광주광역시립도서관

**①** 초등학생·일반·대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순으로, 평일 오후 1~6시 사이에 많이 이용한다. 평일은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토·일요일은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다. 월평균 대출권수는 14,972권, 최근 6개월간 최다 대출도서는 《아리랑》, 《내 영혼의 닦고 기 수프》, 《하늘이여 땅이여》, 《태백산맥》 등이며 문학·사회과학·총류 순으로 많이 대출된다.

**②** 성적반영 등으로 옛날보다 독서 생활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갖춰 많은 계층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독서운동을 전개해 도서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지방사서주사보 진재호).

## 해운대도서관

**①** 대출 분야는 문학·아동·교양·전문서적의 순이며 관외 대출하지 않는 컴퓨터·법학 관련 도서도 많이 열람한다. 관외 대출의 경우 하루 평균 90여명의 이용자가 170여권을 대출한다(월 평균 5,100여권).

**②** IMF 여파로 취업·창업 관련 도서 열람이 많으며 성인 이용자의 수도 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로맨스 소설이나 무협소설 등 흥미 위주로 독서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연계하여 독서프로그램을 마련,

### 설문 내용

**①** 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대출  
현황(이용자들의 특성, 월평균 도서 대출권수, 최근 6개월간 최다 대출도서와 그 분야 등).

**②** 현재 도서관 이용자의  
독서경향과 독서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

### 마포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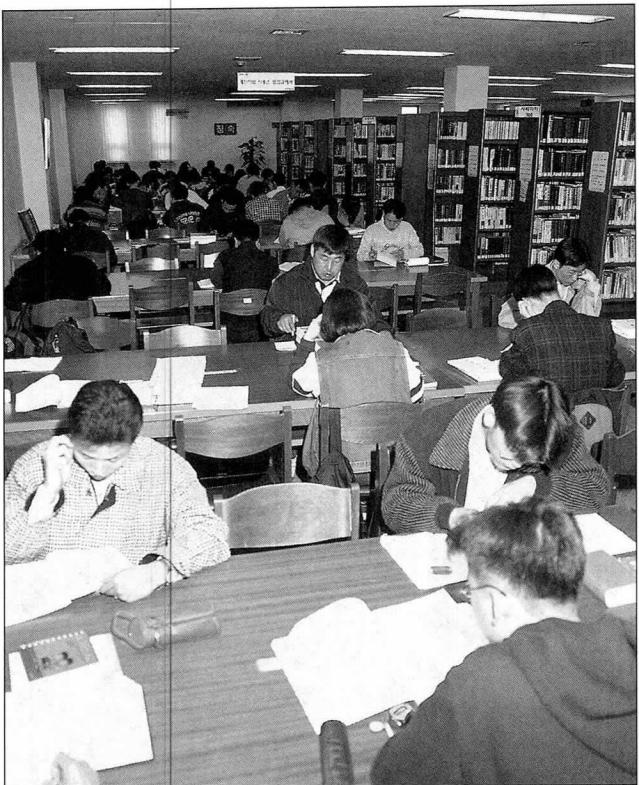
**①**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20대, 이용시간별로는 오후 2~5시에 가장 많이 이용한다. 월평균 대출권수는 18,800권. 최근 6개월 간 《하늘이여 땅이여》, 《남자의 향기》 등 문학 분야가 가장 많이 대출됐다.

**②** 지난 3년간 도서관 기능 회복에 주력한 결과, 공부방이 아닌 도서관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대출도서 반납 책임이 희박하다. 독서운동을 고취시키려면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둬 어린 시절부터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사회인의 독서의식 고취를 위해 공공도서관도 많이 건립해야 한다(열람과 과장 김영업).

### 정독도서관

**①** 관외대출실의 통계를 보면, 일반개론서 및 교양도서, 문학서가 많다. 남녀 비율은 비

## 건전한 출판 비평을 바탕으로 질높은 출판을!



도서관의 대출건수 가운데 학생층의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교육시키는 일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자료봉사과 지방사서주사 오미순).

### 부여도서관

① 오전에는 일반 열람자와 유아들이, 오후에는 수업을 마친 중고생이 주를 이룬다. 토·일요일, 성인 남자들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월평균 대출권수는 6,000권이며 최근 6개월간 최대 대출 도서는 《아리랑》, 《태백산맥》, 《토지》 등으로 문학이 주를 이룬다. ② 언론에 소개된 신간서적을 많이 찾는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 그냥 돌아가는 이용자도 있다. 객관적인 도서서평지가 많았으면 한다(부여도서관 사서 성은정).

### 어린이도서관

① 어린이 및 학부모가 대부분이다. 만2세부터 초등학생까지가 주 이용계층이며 오전에는 주부가, 오후에는 초등학생이 많이 찾는다. 주말에는 평일의 2배 이상 이용자가 몰린다. 월평균 대출권수는 55,000여권이며 최근 6개월간 초등학생 도서의 경우 문학, 역사류, 성인도서의 경우 문학, 교육 분야의 순으로 많이 대출됐다.

② 어린이들은 양서보다는 당장 흥미를 끄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고전 등 무거운 주제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독서 형태라 할 수 있다. 외국 책을 그대로 옮기거나 재출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유아에서 초등학생, 중고생, 성인으로 자연스럽게 독서 문화를 이어가려면 각 시기에 맞는 양서 출간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사서 김선연).

### 점자도서관

① 전체 대출 서적 중, 소설이 80%, 비소설이 12%, 아동도서가 3%, 기타 과학 및 역사서가 6%를 차지한다. 월평균 대출권수는 약 650권이며 가장 많이 대출되는 분야는 문학이다.

② 회원의 직업적 특성으로 볼 때,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류를 많이 대출한다. 시각장애인이나 회원이라 방문보다는 전화 및 편지로 대출신청을 받는다. 그래서 대출·반납 기간이 길며 문자책 1권이 점자책으로는 2~5권까지 되는 불편이 있다(사서 김미영).

### 사회과학도서관

① 사회과학도서관은 관내 자료열람과 복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1998년 상반기 월평균 이용자수는 7,676명이며 이용지층은 대학원생 36%, 일반 32%, 대학생 24%, 교수 8% 순이다. 전공별로는 경영학 25.9%, 경제학 10%, 사회학 9.5%, 정치학 3.6%, 행정학 5.8%, 법학 4.1%, 기타 41.9%의 순이다. 최근 6개월간 최대 대출 도서는 《American Economic Review》, 《Harvard Business Review》,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경영학연구》, 《한국정치학회보》, 《한국행정학보》 등이다.

② 신청건수를 볼 때, 학술잡지를 많이 이용한다(사서 진선미). — 정리·김연수 기자

책을 출판하는 것은 출판사나 편집자가 사회를 향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과도 같습니다. 책은 저자와 독자가 대화하는 매체입니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에 대해 다른 관점이나 비평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출판 비평은 저자의 논점이 얼마나 타월한지, 그 논점이 균형이 있는지, 너무 편협적인지, 때로는 매서운 비판으로, 때로는 애정어린 충고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출판인 뿐 아니라 작가들도 책을 너무나 쉽게 출판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출속주의, 상업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평은 다릅니다. 비평문은 전문가가 쓰는 것입니다. 출판 비평은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판 비평은 비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물지각과 편협성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선 비평가가 비평 논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비평가가 책의 주제에 약간의 안목이 있다거나 자칭 출판 평론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쉽게 펜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개인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중요한 관점을 놓치기도 합니다. 또한 비평가가 저자나 출판사와 결탁하여 청찬일변도의 비평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한 비평은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자나 비평가 나아가 독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정직한 출판 비평 없이 한국 출판은 절대로 세계의 지성 운동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좋은 비평은 책의 질을 반드시 끌어올리고, 저자들이 보다 진지하게 책을 쓸 수 있도록 무언의 압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명예를 걸고 출판비평을 게재하는 권위있는 신문이나 잡지가 많아야 우리의 출판 문화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위에 도전해 볼 신문사나 잡지사가 어디 없을까요?



### • 인턴 사원 모집 •

예영커뮤니케이션은 출판 활성화를 위해 출판관련 세미나와 이벤트를 기획·홍보할 인턴 사원을 모집합니다.

필요한 자질 : 부드러운 매너, 강한 추진력,  
영작과 회화 가능자  
문의전화 : 851-2247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52-059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19-1

출판부 T.851-2247 출판유통사업부 T.830-8566 F.830-8567 도모사업부 T.851-2248  
CUP은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